

의학 학술지 평가사업의 배경 및 취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평가위원장,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책임자

조 승 열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를 실제로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 평가 실행 방안을 다듬어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가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대한 의학회와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합니다. 대한의학회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은 즉 각 분과학회 발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대한의학회의 회원 학회로 가입하려면 그에 알맞는 학문적 업적을 쌓은 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원 자격을 남발하지 않고 대한의학회의 권위와 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를 재구분(recategorize)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조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 정책조정 결과가 어떤 모양이 되든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분화하여 소그룹을 만들거나 또는 공통관심사를 기초로 뭉쳐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의학 학술모임을 격려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의학회 회원 자격 category를 지금보다 세분화 계통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책정하는 대한의학회의 회원 category중 그 일부에 대하여 학문적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학문적 실적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술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회원 학회의 학술지 발행 요구 정책이 우리나라의 세부전문 학술지 발행을 촉진시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측면이 있으나 학술지 발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회원자격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분화 전문화는 현대의학이 회피할 수 없는 발전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전문학회는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의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도입되는 현상은 모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방향을 주도하지는 못하였어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힘입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 세부전문학술지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대한의학회는 1989년 이후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문제를 평가하는 워크숍을 몇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에 대한 평판이 낮은 것은 독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편집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집권이 제한되어 양질의 학술지를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집권이 제한되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원고난, 편집권에 대한 이해 부족, 편집 훈련 부족, 그리고 논문심사에 대한 저자의 거부감과 같은 문화적 관행 등입니다. 따라서 의학 학술지란 보편적 의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세계적인 의학적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그 기본 임무를 정의한다면 편집권이 약하다는 사실은 우리 의학학술지가 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평판이 높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의학회는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술지 발전을 장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몇가지 공통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당장 닥친 문제는 소위 과학인용지표 (SCI) 열풍입니다. 교육부와 과기처가 주도하는 SCI 상위 학술지 게재 논문 우대 정책은 199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 정책은 이미 1980년대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학 지식은 WTO체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체제이며 보편적인 지식체제입니다. 심사도 없이 게재하는 우리나라 학술지 논문을 낮게 평가하고 SCI 1200에 드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국가 전략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그동안 양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하고 인쇄제본 분야에서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 작업이 부실하여 질적 발전이 늦고 의학정보 세계화 부분에서 부진하다는 점은 우리 학술지의 만성적인 고질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각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평가하되 각 학회가 자체적으로 학술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우대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우리 의학 학술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논문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은 해외로 빠져 나가 생각있는 편집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의학 학술지가 계속 팽창하고 발전할 구석이 있고 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과기처와 과학재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최근 의학연구비를 계속 증액하였습니다. 과학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연구비 투자액에 비례하므로 연구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고난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 의과대학 졸업생의 숫자가 급증하고, 또 미국의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받은 우리나라 Ph.D.들이 귀국하고 있고 연구 인력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연구 업적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의학 연구 논문수가 줄어들 요인과 늘어날 요인이 뒤섞인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존재해야 하고 또 계속 발전해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학 학술지가 게재논문을 상호 심의, 교정 등 과정을 힘들게 거쳐서 게재하게 함으로써 저자들이 심사 경험을 갖게 하여 비슷한 수준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을 미리 훈련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학술지는 우리 의학 논문 수준을 세계화하는 수련장,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선수권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쓴 사람이면 세계 어느 학술지에도 논문을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의학 학술지 편집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글로 쓴 의학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의학 학술지에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좋은 의학 논문이 실린다면 그것은 우리 말이 의학분야에서도 그만큼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분간 우리 이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 의학 학술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당장 Medline 등에 등재되는 학술지가 될 만한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Medline은 세계적으로 의학관계 3600여종 학술지의 초록을 정리하여 보급하는 system이며 Medline 채택 학술지 선택 기준에서 사용 언어는 제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체제를 정비하고, 오자를 없애고, layout을 잘 그리고, 사진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영문초록을 영어답게 만들어 낸다면 우리말로 된 의학학술지라 할지라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항상 두드려 보는 Medline에 채택될 만한 자료는 우리 학술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채택하도록 노력한 학술지 숫자가 적다는 것이 현재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Medline에 게재되는 의학 학술지가 늘어 나면 지금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각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속에서 그리든 평가 기준은 그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이라고 표현되는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데에서 우리는 전문가적인 소양과 자료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Science Citation Index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경우 SCI 자료상 너무 impact factor가 낮아 평가 감별능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평가하는 학술지 평가 항목은 대부분 편집에 관련된 사항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도 SCI impact factor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만드는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Medline에는 채택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을 서슴없이 말씀하시고 특히 중점부분에 weight를 주어 부가점수를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창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8. 25)